



## 정보통신부 설정선 정보통신협력본부장 초청 강연 제30회 정보통신포럼, 6월27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서 개최



협회는 지난 6월27일(수) 서울 메리어트호텔 미팅룸 2에서 설정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본부장을 초청, '제30회 정보통신포럼'을 개최했다.

한미 FTA 타결로 국내 총생산의 15%를 점유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에 다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포럼에서는 “한·미 FTA와 정보통신산업”이라는 주제로 IT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 대한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미 FTA 체결 이후의 정보통신분야 대미 수출지원 방안 및 기대효과 등이 소개되었다.

설 본부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정부가 FTA 체결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 및 통신서비스 경쟁력 강화, 해외마케팅 및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강화해 해외투자유치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차기 제31회 정보통신포럼은 정보통신부 류필계 정보통신정책본부장을 초청, 7월25일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 협회 고객센터팀 580-0662~3

情감있는 디지털세상  
스무살이 KAIT기 함께 합니다

### 핸드폰찾기 콜센터 협회창립 20주년 기념 경품행사

핸드폰찾기콜센터는 협회 창립기념일(5월 23일)에 우체국으로 습득한 핸드폰을 접수한 사람 중 17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카메라 등의 경품을 발송(6.11)하고, 습득자들과의 개별연락을 통하여 협회 및 콜센터에 대한 인식조사와 간단한 설문, 당첨소감 및 바라는 점을 수렴하였다.

설문결과 주요 습득 장소는 야외/길거리, 음식점, 택시/지하철 순이었으며, 26% 정도가 핸드폰을 분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체국을 통한 습득신고 방법을 인지하고 있던 시민은 63%, KAIT와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 핸드폰을 찾아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은 18%로 나타났으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설문결과에 따라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는 설문대상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업무처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홍보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KAIT 창립 20주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예정이다. 협회는 1999년부터 핸드폰찾기콜센터(☎ 02-3471-1155, 인터넷 www.handphone.or.kr, ARS 060-700-0550)를 운영하여 전국 2,800여개 우체국을 통해 접수된 분실 핸드폰을 무료로 주인에게 찾아주고 있으며, 습득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주고 있다.

### 제14회 대한민국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시상 LG전자 고해상도 DVD Player 대통령상 수상



기술대상' 대통령상에 LG전자의 'Super Blu Player' 가 선정됐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와 협회가 공동 주관하여 지난 7월6일 한경 다산홀에서 14번째로 개최된 이번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심사에서는 대통령상을 비롯한 7개 제품 및 기술이 수상작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은 정보통신부 노준형 장관을 비롯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제품 전시회 등도 함께 개최됐다.

이 날 노준형 장관은 "정보통신업계의 앞선 행동이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좋은 씨앗이 될 것"이라며 "IT강국으로 세계 선두주자가 되고자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LG전자의 'Super Blu Player' 는 향후 고해상도 DVD Player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차세대 제품으로, Blu-ray와 HD-DVD 양대 고해상도 DVD 포맷을 한 개의 pick-up으로 재생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갖췄다.

또한 ▲국무총리상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멀티미디어 영상기기 '177cm Multimedia LCD TV with LED Backlight' ▲정보통신부장관상은 매직아이의 'MMWP2+', 인트로모바일의 'NetMirror', 삼성전자의 '홈서버 및 단말 기술' ▲한국경제신문사장상은 삼성전자의 '제2세대 Ultra Mobile PC Q1Ultra'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장상은 바로비전의 'Modion STAR' 가 각각 차지했다.

IT산업의 핵심 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응용분야의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제14회 대한민국 멀티미디어

## 성년 맞은 KAIT, "IT강국 위상 높이는 데 이바지 할 것"



협회는 지난 5월 22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서울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날 창립기념식에는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환·홍창선·강성종 의원, 역대 정보통신부 장관, 정장호 전 정보통신산업협회장, 김창국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등 국내 정보통신 업계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이기태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IT가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협회는 '성년'이 된 모습으로 IT강국으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IT산업의 성장에는 지난 1987년 창설 이래 20년간 역할을 잘 수행해 온 정보통신산업협회의 노력이 있었다."며, "특히, 올 4월에는 IT통합전시회인 '코리아 IT쇼'를 개최함으로써 비즈니스 중심의 국제적인 전시회로 격상시켰는데, 앞으로도 정보통신산업계의 이미지 제고와 업계 애로점 해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걸어온 지난 20년의 연혁이 소개됐으며, 정보통신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가 수여됐다. 또, 협회 내 각 부서별 의미 있는 물건을 하나씩 담은 타임캡슐 봉안식도 가졌다.

### 협회, '올해의 kait인' 선정 발표

협회는 지난 5월 임직원의 추천을 받아, '2007kait인'으로 진기화 고객사업팀장을 선정했다.

진 팀장은 올해 최초로 통합 진행된 IT전시회인 KIS (KOREA IT SHOW) 2007을 성사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로 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올해의 KAIT인에게는 협회장 표창과 2박3일의 특별휴가 및 휴가비(숙박, 항공료 등)가 지원된다.

### 태국투자청과 업무협약

협회는 지난 5월28일 태국투자청(Board of Investment of Thailand) 한국사무소(Vittaya Praisuwan 등 12명) 방문단과 회의를 갖고, 태국투자청 및 태국 IT환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양국 간의 IT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제1회 KAIT 임원사 실무협의회 개최

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객만족을 제고하기 위해, 협회 임원사 실무담당자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6월22일 첫 모임을 가졌다.

### KAIT 인사발령 (6. 1 일자)

대리임용	신규채용
정보보호사업팀 6급 조동균, 이상호	IT통계정보센터 IT산업연구부문 김대성 4급
IT통계정보센터 6급 김병진, 김재두, 윤형준	IT통계정보센터 조사통계팀 김상일 6급 대리

情감있는 디지털세상  
스무살이 KAIT기 함께 합니다

### KAIT 발간물 DB 구축 운영

협회는 7월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와의 제휴를 통해 협회가 발간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 '정보통신정책실명회자료' 등을 무료로 데이터베이스화해 회원들에게 pdf파일로 제공키로 했다. 기 발간 자료는 연내에 DB구축을 마치고, 향후 발간자료와 함께 최단기간 내에 pdf파일로 제공하게 된다.

### 중국 CACE 협회 방문 상호 관심사 협의

협회는 7월3일 중국통신기업협회(CACE) 회장단(Liu liqing 회장 외 6명)을 초청, 한국과 중국의 통신사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향후 상호협력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 협회 임직원 춘계 체육행사

협회는 지난 5월 22일 창립2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을 자축하고, 성년으로서의 새로운 다짐과 임직원의 단합을 위해 지난 6월15일 경기도 소재 연인산에서 등반행사를 가졌다.



## 동남아 시장! u코리아 기술력으로 승부한다! '커뮤닉 아시아 2007' 한국관 참가



협회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지원으로 유망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19일부터 22

일까지 4일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Communic Asia 2007' 전시회에 국내 중소기업 한국 공동관을 구성했다. 협회 주관 한국관에 참가한 제노, 이너스텍, 엔컴퓨팅, 웨이브텍, 성일텔레콤, 하이게인텔레콤 등 15개 중소기업은 약 28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주)제노(대표 김정상)는 이번 전시회 한국관 중소기업 단일 품목으로 최대의 실적을 거둬 주목 받았다. 이 회사는 이번 전시회에 2년간 약 20억원의 R&D 비용을 들여 개발한 세계최초 휴대형 인터넷 방송시스템을 선보여, 전시회를 찾은 총 8개국 17개 바이어로부터 실질적인 LOI를 받는 성과를 거뒀으며, 1대당 가격이 미화 1만 달러에 달하는 UCCTOP XENO 총 1120대, 약 1100만달러의 수출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싱가포르 커뮤닉아시아 2007 전시회는 동남아시아 지역 바이어의 분포도가 높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전문 국제전시회로, 65개국 2400개사가 참가했다. 특히 아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독일,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22개국에서 국가관을 구성·참가해 각국의 신기술 시연·홍보의 장으로 활용했다.

문의: 협회 해외사업팀 02-580-0582~3